

2년뒤부터 전남 모든 초·중학생 교복·수학여행비도 무상

장만채 도교육감 무상급식 이어 파격 정책 소요예산 1400억...다른 사업 차질 우려도

오는 2012년부터 전남지역 초·중학생들이 사실상 무상 의무교육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기본이고, 학습준비물과 학교운영지원비·교복비·수학여행비·체험학습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매년 14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교육청 내부에서는 각종 교육시설 사업의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읍 이하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저소득층 학생·100명 이하 중학교 학생 15만 6011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2012년부터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예산은 2011년 660억원, 2012년부터는 연간 948억4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습준비물과 학교운영지원비·교복비·수학여행비·체험학습비·야영수련활동비 등도 지원

된다. 2011년부터 초등학생 준비물(62억원)과 중학생 학교운영비(148억원)·중학교 교복비(71억5000만원)가 전액 지원되며, 2012년에는 추가로 초·중학생 수학여행비(63억원)·체험학습비(60억원)·야영수련활동비(45억원) 등도 지급된다. 이러한 무상의무 교육을 위해서는 2012년부터 매년 14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청이 그동안 무상급식비로 연간 461억원과 학습준비물 36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0억원 등 537억원을 지원해 온 점을 감안하면 86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셈이다. 취임준비위는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전시·선심성 사업을 폐지하고 토건공사 등을 축소하는 한편 무상급식의 경우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50% 안팎의 지원비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간 148억원이 소요되는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는 추후 국고 전환을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상교육에 대한 막대한 예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가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문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분향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

산 투입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복지지원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획재정부 등에서 방만한 예산운용을 트집잡아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일마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알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광일춘추’ 필진 바꿉니다

전국 대표 지방 정론자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들을 초대,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칼럼 ‘광일춘추’ 필진이 1일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매일신문·경남신문·

강원일보·경인일보·대전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는 각계 권위 인사들로 필진을 구성,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정진승(65) APEC기후센터 소장
▲미국 조지아대학 대학원 산업조직론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 한국 과학기술원 초빙 교수 ▲전 환경부 차관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김형준(53)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한국 선거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서홍관(62) 의사·시인
▲서울대 의학 박사 ▲참작과 비평 16인 신작시집 ‘금주선언’으로 데뷔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의사 ▲금연학회 회장



◇이웅우(62) 광주비엔날레 부이사장
▲연세대학교 문학 학사 ▲옥스퍼드대 대학원 미술사학 박사 ▲현대미술학회 회장 ▲고려대 미술교육학 교수 ▲2004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光州日報社

광주시의장 민주 후보 경선 초선 윤봉근 당선 ‘파란’

3선 손재홍 의원 놀라

민주당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초선인 윤봉근(55) 당선자가 3선인 손재홍(50) 의원을 누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관련기사 5면> 이는 그동안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노출된 ‘줄 세우기’ ‘의정단 나눠먹기’ 관행에 염증을 느낀 초선들의 여론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제6대 광주시의회 운영에 초선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광주시의원 당선자들은 30일 오후 광주 서구 CMB 컨벤션홀에서 손재홍·조호권·윤봉근·나종현 의원 등 의장후보(기호 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후보 경선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 투표를 실시했다.

가운데 광주시의회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당선자 2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윤 당선자는 2차 결선투표 끝에 10표를 얻어 9표를 획득한 3선인 손재홍(50) 의원을 누르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1표는 기권이 었다.

이에 앞서 1차 투표에서 윤 당선자가 8표, 손 의원 5표, 재선인 조호권(50) 의원 4표, 3선인 나종현(67) 의원 3표 등을 각각 얻어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에 들어갔다.

2차 결선투표 결과 윤 당선자가 반수를 넘지 못해 한동안 논란이 일었으나, 손 의원이 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고교 선배이기도 한 윤 당선자에게 축하인사를 건네 박수를 받았다.

었다. 윤 당선자는 “광주시의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책임감 있게 광주시의회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6일 열린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윤 당선자와 민주노동당 강은미 당선자 등 2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 이태표가 없는 한 정당별 시의원 분포상(민주당 20명, 민노당 2명, 교육의원 4명)은 당선자의 의장 당선에 확실시된다.

전교조 교사 출신인 윤 당선자는 광주 서구위원회와 시 교육위원, 시 교육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본사 회장에 김종택씨

주식회사 광주일보는 1일자로 회장에 김종택(金鐘宅·61)씨를 선임했다.

김회장은 광주태생으로 전남대 문리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장, 미국 어드벤처 에어라인 회장, 중국 금융집단 회장, 아태 신기술회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내달 중 열릴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학교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움더불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민선 5기, 광주일보의 4대 제안

성장동력 만들어 젊은인재 붙잡아라

신는 순서

- 1 주민과 소통하라
- 2 낮은 관행 깨뜨려라
- 3 의회는 견제하라
- 4 일자리를 만들어라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노상현(29)씨의 근무처는 경남 거제다. 연고도 없이 직장을 찾아 고향을 등졌지만 일이 없는 주말이면 매주 광주를 찾아 가족과 친구

부가가치 높은 산업 위주로 재편해야

들을 만나 외로움을 달랠다. 홍원석(29·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 졸업)씨도 지난해 직장을 찾아 경주로 옮겼다. 한 달에 두 차례 고향을 찾을 때마다 들어가는 교통비만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의 지난해 취업률은 88.5%였다. 이들 취업자 상당수가 광주·전남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도 지난

해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한 32명 가운데 13명은 광주·전남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광주·전남에 제조업을 둔 기업체가 부족하고, 채용 인원도 적은 탓에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지역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연봉이 다소 낮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직장인들도 많다. 광주·전남 고용 악화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일자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젊은층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찾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젊은층들도 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광주 실업률은 전년과 같은 기간에 걸췌 9.3% 상승했고 전남도 전년 동기 대비 6.7% 올랐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축소된데다, 올해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끝> ▶2면으로 계속 /김지들기자 dok2000@

수분의 호환성
피부속까지
스킨케어 전력을
활용한다

Subhasan